

# 계단, 경사로 그리고 저소음 구역

Stairs, ramps  
and low noise area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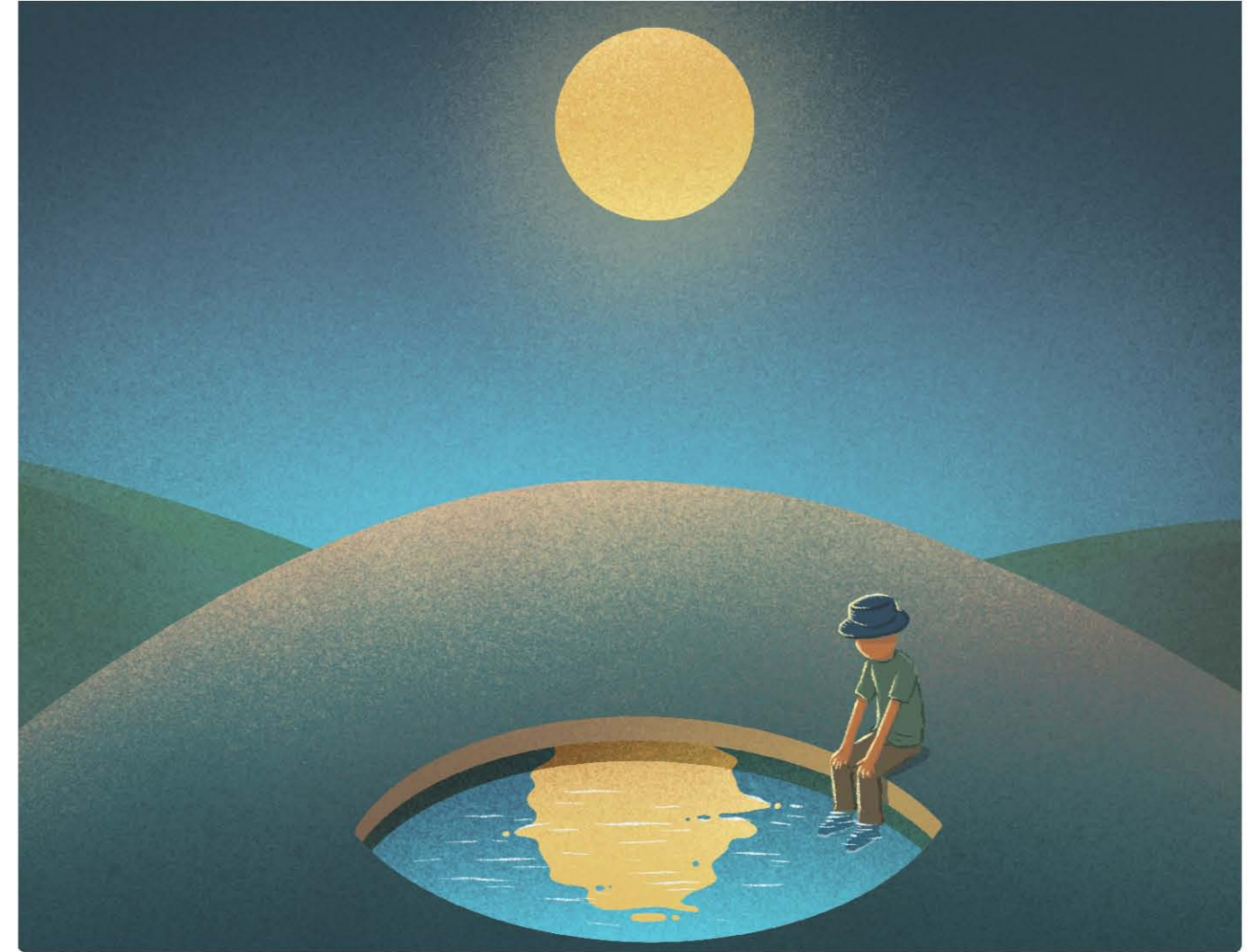
“내 건물에 장애인이 들어올 일은 없는데 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나요?” 건축 설계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겪으며 좋은 나쁜 인상적인 기억들이 생기기 마련인데, 저 말을 들던 날의 놀라움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. 당시 건축주는 허가를 진행하며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건물 입구의 단차를 경사로로 바꿔야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.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, 지어질 건물이 관련 법률에 의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‘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’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. 건축주는 이유를 듣고 난 후에도 자신의 건물에 공공이니 공중이니 하는 말이 왜 붙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눈치였지만,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하다 하니 최소한의 변경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대화를 마쳤다. 결국 편리하게 쓰일지는 의문스러운, 조금은 궁색한 경사로를 덧붙인 채 허가는 완료되었다.

오래전이지만 지금도 가끔 그때의 놀라움을 곱씹어 보는 이유는 건축주가 ‘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’이라는 용어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‘공공건축’의 의미로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도 아니고,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‘모두’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‘장애인’만을 위한 시설이라 오해한 것 때문도 아니다. 정말 놀랐던 건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나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. 그때 허가를 진행하던 건물은 임대하는 공간 없이 전체를 건축주가 운영하는 사업의 사옥과 주거 용도로만 쓸 예정이라 제한된 사람만 오가는 것을 전제로 계획된 공간이었다.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해 허가해야 하는 규모의 프로젝트가 처음인 저연차 실무자였던 나는 당장 해야 하는 일들만으로도 힘에 부치는데 또 수정할 부분이 생겼다는 것에 낙담하며 ‘관계자들만 쓸 건물인데 편의시설이 필요한 불특정의 사람들이 이용할 일은 없지 않나?’라고 약간은 불평스럽게 생각해 버린 차였다. 그래도 기준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 일이

니 건축주에게 확인하고 진행하려 내용을 전달했고, 돌아온 건 “내 건물에 장애인이 들어올 일은 없는데 왜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나요?”라는 말이었다.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하는 행동은 의외로 강력한 힘이 있어서, 나도 생각했던 내용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발화되고 나니 정말이지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. 아무리 사적으로 전유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 없이 홀로 지어질 수 없는 건데, 존재하되 그 스스로가 환경이 되는 것은 거부하겠다는 점에서 말이다.

대단한 전환점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, 덕분에 약간의 경각심이 생겨 어떤 장소에 처음 방문하거나 새로운 것을 볼 때 물리적으로써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의미를 포함하여 여러 경계가 만드는 턱을 유심히 보는 편이다. 그런데 얼마 전 <웰컴 투 렉섬>이라는 축구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런 시선 또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. <웰컴 투 렉섬>은 축구에 무지한 할리우드 스타 라이언 레이놀즈와 롭 매칼헤니가 영국 웨일즈 동남부의 렉섬이라는 도시의 아주 오래된 축구클럽을 인수하여, 팀이 속해있던 프로축구 최하위 리그에서 상위리그로 승급하기 위한 여정을 담은 시리즈다. 재미있는 점은 축구클럽의 구성원과 축구장, 시설 등 그 내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클럽과 지역사회의 상호 관계, 운영하는 직원들과 서포터들의 다양한 삶, 지역공동체의 역사, 가족의 일원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축구 선수의 모습 등 리그 순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을 각기 에피소드의 주제에 맞게 집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. 시리즈가 끝날 무렵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는 렉섬의 성과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. 흥미로운 소재들이 많았지만 그중에서 시청이 끝난 후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건 ‘저소음 구역’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다. 이야기는 자페스펙트럼에 속해있는 서포터 밀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. 밀리는 어렸을 때 장애인 축구를 시작했고 렉섬의 여자축구팀에서 뛰었으며, 지금은 구장의 저소음 구역에

글. 임서연  
Lim, Seoyeon  
오운 건축사사무소



서 시즌권으로 경기를 챙겨보며 팀을 응원하는 열혈 서포터다. 자페스펙트럼과 저소음 구역에 관한 내용을 SNS에 공유하고 선수들, 그리고 구장 직원들과 연대감을 느끼며 구성원으로서 자신만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.

경기장의 휠체어석은 알고 있지만, 저소음 구역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.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구단의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. 저소음 구역은 자페스펙트럼 장애처럼 소리나 빛 등 감각적 자극에 민감한 관중들이 이용하는 자리인데, 귀 보호장치라든지 전용 화장실, 안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등과 함께 제공되는 것이었다. 물론 구장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중석 공간도 있었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와 오디오 해설 서비스,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이 이용할 수 있는 히어링 루프도 있었다. 또한 치매 친화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대비의 색상으로 칠한 화장실과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노란색의 계단 등을 제공한다고 소개되어 있었다.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낮아지는 경계들이 있더니 놀라울 뿐이었고 내가 경험하고 감각했던 공간들은 어떠했는지, 잘 알지 못해 보지 못하고 지나친 건 없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. 건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지만,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선 어떤 고민들을 해 봐야 하는지도 말이다.

일이 많고 힘들다는 핑계로 계단을 경사로로 수정하는 걸 불평했던 그때의 나는 이제 규모는 작지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었다. 여러 공모전에 지원해 지어질 확률이 적은 계획안을 작성하며 관성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한 일은 없었는지, 그때처럼 궁색하게 덧붙인 것은 없었는지 생각해 본다. 축구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예전 건축주와의 일을 떠올리고 조금 더 생각이 깊어졌듯이, 언뜻 보기엔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연결되어 좋은 나쁜 인상적인 기억들이 계속 갱신되면 언젠가 하고 있는 일도 덧붙인 게 아니라 원래 그러하듯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. 그 많은 일들을 지나 시리즈의 끝에 렉섬이 결국 상부리그로 승격했듯이 말이다.



임서연 건축사 · 오운 건축사사무소  
한양대학교 건축학부를 졸업하고 디아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. 2020년부터 오운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.

office@oownarchitecture.com